

자치구경제이슈

- 「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」 세계 속의
서초를 향하여
황인식(서초구청 생활복지국장)

「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」 세계 속의 서초를 향하여

황인식
서초구청 생활복지국장
hwangis@seocho.go.kr

서초구 지역특성 및 지역경제 현황

1. 지역특성

- 구 전체 면적의 52%가 그린벨트(개발제한구역)로 구성된 환경친화적 자연녹지 지역으로 농촌과 도심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지역공동체이며 또한 대법원, 외교센터, 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이 밀집한 지역임
-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기·종점, 각종 터미널이 위치한 물류유통의 수도권 관문임

2. 지역경제 현황

- 현대·기아그룹 본사 등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324개이며 벤처확인기업은 487개 대형유통시설은 농협하나로클럽, 코스트코, 코리아, 이마트 등 30여개가 있음
- 최근에는 현대·기아차 그룹 본사에 이어 삼성타운건립, LG전자 R&D 센터건립, 롯데타운 건립추진 등으로 지역경제에 밝은 빛이 보이고 세계적인 경제도시 서초로 도약 중임
- 한편 6,000여개의 음식점이 성업중이며, 작년 12월 조선일보가 분석한 음식점이 가장 잘 되는 자치구로 알려지고 있음
- 꽃마을 이라는 명칭이 남아 있듯이 서울시 화훼농가의 2/3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임

〈표1〉 지역경제 현황¹⁾

시장현황	백화점	대형점	전문점	일반시장	계				
	1	4	3	22	30				
사업체 현황	종사자수								계(업체수)
	9명이하	10~49명	50~99명	100명이상					
	30,538	3,977	390	324				35,229	
벤처확인 기업 ²⁾	S/W 개발	컴퓨터 주변기기	인터넷 서비스	영상 장비	의료 기기	통신 장비	기타		계
	247	40	47	9	5	36	103		487
식품위생 업소	유형 주점	단란 주점	일반 음식점	휴게 음식점	제과점	위탁 급식소		계	
	133	171	5,719	638	201	78		6,940	
식품제조 판매업	식품제조 가공업	즉석판매 제조가 공업	식품 소분업	유통전문 판매업	기타식품 판매업	건강기능 식품	식품 운반법	자동 판매기	계
	45	582	146	339	38	1,580	10	872	3,612

주:1) 2005년 기준임

2) 서초구 벤처직접시설(2개빌딩 10개업체 입주)

기업입지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

1.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

-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의 기·종점이며 5개의 IC가 있는 수도권서울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고속터미널, 남부터미널, 화물터미널 등이 위치한 물류유통의 수도권 중심지임
- 이러한 접근성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수원, 평택, 용인, 안산 등지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
- 5개의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남부수도권의 교통요충지이며 2009년 개통되는 분당(정자)과 강남역을 잇는 신분당선의 건설로 더욱 편리한 교통여건이 성숙되고 있음

2. 기업입지를 위한 행정지원 • 즈니스의 신메카

- LG전자는 서초 R&D 캠퍼스 3만8천평을 2009년2월 완공하며, 삼성은 서초동 7,7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11만 7천평 규모의 태평로 본사를 능가하는 삼성타운을 건립중임

- 이미 현대기아차그룹은 2005년 5월부터 양재동 본사를 쌍둥이 빌딩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1월 연건평 2만평, 21층 높이의 R&D 센터가 완공될 예정임
- 또한 롯데그룹은 삼성타운 인근의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부지에 주거시설, 업무시설, 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(롯데타운)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임
- 이러한 과정에는 “기업하기 좋은 도시” 를 모토로 내건 서초구의 발 빠른 행정서비스가 비즈니스의 ‘신메카 서초’ 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함

〈표2〉 현대·기아차, 삼성타운, LG전자센터 현황

구 분	현대·기아차	삼성	LG전자
위 치	양재 IC부근	강남역사거리	양재IC 부근
용 도	본사,R&D 센터	사옥	R&D 센터
연면적	4만3천평	11만8천평	3만8천평
규 모	지하3층, 지상21층 2개동	지하8층, 지상45층 3개동	지하5층, 지상25층

3. CEO 포럼 「초경제인 포럼」의 파트너십

-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기업체 또는 연간 매출액 300억 이상의 기업들 중 약50여명의 CEO 들이 스스로 “초경제인 포럼” 을 2005년 7월 창설하여 함께 연구하고 유명한 사 및 전문가와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경제정보교환 및 유대형성에 기여함
- 이 포럼에는 구청장도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초구 발전을 위한 협조사항을 제안하는 등의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

4. 지역기업과 주민간 연대감 고취

- 서초구는 매월 어려운 이웃 또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“지역인사와 함께하는 사례회의” 를 개최하고 있음
- 이 사례회의에 초경제인 포럼 CEO 들이 교대로 참석하여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주민밀착형 사회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
- 또한 지역기업(예, 아주그룹)들이 스스로 복지재단 등의 법인을 설치하여 지역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
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

-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조분야 상품을 서초 명물로 지정하여 신용을 보증하고 지역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함
- “서초생활net”이라는 인터넷 N/W을 구축하여 지역내 사업체의 수입향상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
- 한편 각종 단속행정(음식점, 환경관련사업체 등)에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스스로 법류를 준수하는 의식을 고양시킴
- 포장마차의 엄격한 단속, 점심시간 주차단속의 능률적인 시행 등으로 지역내 사업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

결 어

- 대통령께서 외국 방문시 “기업이 국력이다” 라는 국가경제정책 협조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
- 기업이 복지를 위한 최고의 주도자로서 이는 고용을 통한 국민생활지원, 복지자원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서 볼 수 있음
- 기업을 살리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행정을 수행함이 지역경제행정의 기초이자 최선임

참고문헌

- 조선일보, 「대한민국 황금상권」, 2005. 12. 26
- 지방행정연구원, 「지방포럼 2005년 5월호」, 2000
- 재정경제부, 「월간 경제동향 2005년 11월호」, 2005